

선지식의 삶과 사상 만나자

한 시대를 살다간 스님들의 생애와 교훈, 그리고 독특한 시각에서 들춰보는 이야기들을 엮은 책이 연이어 발간되고 있다. 최근에 나온 책은 <일연을 묻는다(현암사)> <서산-조선을 뒤엎으려 하다(정보와 사람)> <사명대사 난중어록(무이정사)> <동쪽 산이 물 위로 간다-영암스님 이야기(화남)> 등이다. 이에 앞서 올 상반기 원효 스님의 삶을 그린 한승원의 장편소설 <원효1, 2, 3>, 춘원 이광수의 장편소설 <원효대사1, 2>, 한암 스님 회상에서 수행했던 25명의 이야기인 <그리운 스승 한암 스님> 등이 발간됐다. 이밖에 <한용운 재건담-미음의 사색>, <퇴옹성철의 깨달음과 수행>, <승산 스님의 선학강좌> 등도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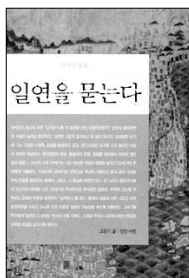
일연 스님

<삼국유사>를 쓴 일연 스님(1206~1289). 일연 스님은 다양한 사회적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곁어간 사상의 궤적도 복잡하다. 무인정권의 혼란, 몽골과의 전쟁, 몽골을 대리해서 치러야 했던 일본 정벌 등 그 고난의 시대인 13세기의 중심에 일연 스님이 서있다. 이번 현암사에서 출간한 <일연을 묻는다>는 일연 스님의 행적을 뒤쫓아가 삼국유사의 행간에 숨은 의미를 살피고 파헤친 13세기 여행 보고서다. 삼국유사 전문가 고운기(연세대 국학연구원) 교수가 일연비문에 남아 있는 기록과 삼국유사 이야기를 토대로 일연의 일대기를 선보이고 있다.



'삼국유사' 행간에 숨은 의미 살살이 파헤쳐

이 책의 책장을 넘기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13세기의 시간과 공간' 지도. 고려 무인정권과 새로운 질서 속의 몽골을 비교하면서 13세기의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스님의 행적을 따라 갈 중간중간에 눈길을 사로잡는 현장 사진을 수록했다. 강화 강화산성 및 선원사터, 경산 동동제, 경주 감은사터·계림·남산, 대왕암·분황사·서촌지·양암지·원정교지, 김해 수로왕릉, 남해 대사리, 달성 남평문씨세거지, 밀양 민어산, 장녕 우포늪, 포항 오어사등의 사진이 그것이다. 특히 일연의 탄생과 입적까지의 생애와 사건을 연표로 만들어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역사 공부를 할 수 있다. 한편 일연 스님은 9세에 고향 경산을 떠나 광주 무등산 무량사에서 출가했으며, 22세에는 승과에 수석합격한다. 51세에 남해의 정림사를 떠나 길상암으로 옮긴 후 <중편조동오위>의 편찬에 들어가, 5년 만에 진술을 끝낸다. 이후 스님은 제주였던 총림왕을 가까이서 1년간 위로할 책임을 맡게 된다. 총림왕은 그후 복귀하여 스님이 일흔여덟 되던 해에 국사로 책봉한다. 국사의 소임을 마치고 하산 소로 정한 인각사에서 스님은 <삼국유사>를 썼다.



일연을 묻는다
고운기 지음 | 현암사 | 1만5000원

서산 대사

사람들이 쉽게 지나칠 수 없었던 지리산 깊은 골짜기 계곡 한가운데 위치한 바위에 안호화 된 문자 도형이 새겨져 있다. 이곳에서 가까운 곳에는 서산 대사(1520~1604)가 <삼가귀감>을 썼던 내은적암 터가 있다. 안호문자인 새김글자 네자는 한자이름 최흥명(崔興命)에서 나왔으며, 서산대사를 가리키는 비밀이름이었다. 그렇다면 금강산과 함께 조선시대 당취(당초)의 양대 본거지였던 지리산 속의 안호문자가 갖는 당취와의 역사적 관련성은 무엇인가? 손병욱 교수(경상대 윤리교육과)가 지은 <서산, 조선을 뒤엎으려 하다>는 지리산 접경산중에 자리잡은 마을 '단천'에서



암호바위 해독 바탕 스님의 궁극적 이상 추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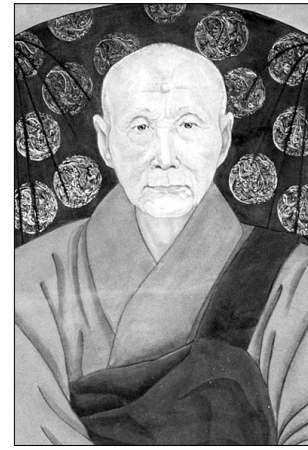
발견한 글자가 새겨진 바위를 모티브로 서산 대사를 중심으로 한 조선조 반체제 승려집단인 '당취(당초)'의 역사를 추적한다. 암호바위의 해독을 바탕으로 서산 대사의 밝혀지지 않은 면모, 역성혁명을 통해 그가 이루고자 했던 궁극적인 이상 등을 살펴본다. 모두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책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안호문자의 주인공이 역성혁명을 도모할 것임을 나타내고, 그 준비로 당취 조직으로 볼 수 있는 승병을 조직, 관리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는 임진왜란에서 서산 대사가 역성혁명을 준비했으며, 조직이 있었기에 승병장으로 활약하게된 기반이 되었다는 것이다. 또 저자는 서산 대사가 당시에 단군으로 자처한 당취계열의 신불승(神佛僧)이었다고 주장한다. 특히 서산 대사가 왕조체제를 바꾸어 은 땅을 청학동으로 만들고자 했음을 들춰내고 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조선 4대 서예가인 봉래 양사언과의 교본, 그와 나는 서간 속에서 정교하게 숨겨진 증거를 고집어내고 있다. 저자인 손병욱 교수는 "서산 대사는 역성혁명으로 기분이 바로 잡힌 사회, 백성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서산, 조선을 뒤엎으려 하다
손병욱 지음 | 정보와사람 | 1만2000원

사명 대사

왜군을 무찌른 승병장이며, 문무를 겸비한 걸출한 선승이자 고승인 사명 대사(1544~1610)의 어록을 엮은 <사명대사 난중어록>이 나왔다. 이 책은 경남 밀양 표충사 소장 <사명대사집> 목판본 중 임진왜란 당시의 난중일기와 임금 선조에게 올린 상소문, 재상들과 주고받은 서간과 전별시, 왜장들과 주고받은 서찰 등이 실려 있는 <분충서난록>을 역주한 것. 내용은 조선시대의 대표적 고승인 사명 대사의 생애는 물론, 한국 불교사상의 흐름, 임진년 당시의 사회상이 수록돼 있다. 생애 부분에서는 1592년 4월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전국 각지의 의승(義僧)들과 함께 왜적을 물리치는 호국전쟁의 선봉



선봉에 선 의승의 모습 수행자의 품모 등 그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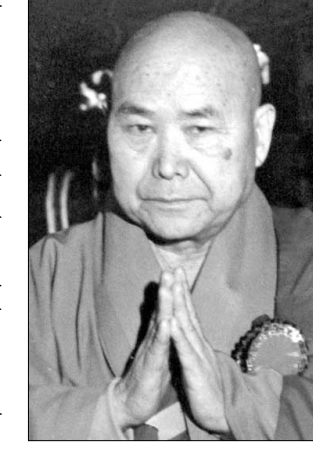
에 서게 된 사명 대사의 모습이 그려진다. 서산 대사의 전거로 선조 임금으로부터 '선교양종 팔도도총섭'을 제수받은 사명 대사는 오랜 세월을 전장에서 보내게 된다. 1597년 선조의 명령을 받고 일본으로 건너갔을 때 왜장이 조선에 보배가 있다고 묻자 "우리나라에는 없고 오직당신의 머리가 바로 조선 민족의 보배"라고 대답해 적장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일화도 소개된다. 또 승병으로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느낀 여러 가지 소회와 충정, 도반들과의 애뜻한 마음, 세월에 대한 무상함이 잘 나타나 있다. 저자인 무이 거부 스님은 "표충사에 주석하면서 사명 대사의 유품을 열람하다가 목판본 판각을 발견했다"며 "대사의 어록이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 <사명대사 집>을 그대로 옮기면서 정리하여 주해를 달아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무이 거부 스님은 또 "현재 일반 학계에서 사명대사의 이름을 '泗溟'으로 쓰고 있으나, 이는 목판 원문을 확인한 결과 오기임이 명백하고 '四溟'이 옳다"고 주장했다. 무이 거부 스님은 지난해 3월 <사명대사어록>을 발간한 바 있다.



사명대사 난중어록
무이 거부 지음 | 무이정사 펴냄
1만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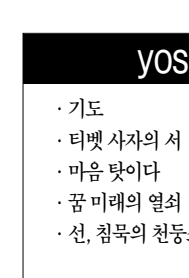
영암 스님

윤문선사에게 누군가가, "부처님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모든 부처님이 어디서부터 생겼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대답이 "동쪽 산이 물 위로 간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해서 부처님이 나온 곳을 알아 맞춰 보라는 말입니다. 그것만 알면 그만입니다. 근대 불교계를 대표하는 스님중 한명이며 조계종단의 어른으로 부처님의 말씀과 믿음을 그대로 간직한 채 실천행을 보여준 영암 스님(1907~1987). 스님은 경을 읽으면 부처님이 어디서 생겼는지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영암 스님이 <금강경>을 재미있고 쉽게 설법한 내용을 묶은 일반 19주기 기념집으로 <동쪽 산이 물위로 간다>라는 책



근대 불교계의 거봉이 '금강경'으로 푼 지혜의 삶

이 발간됐다. 이 책은 총 24부에 걸쳐 욕심 버리기, 자기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등 깨달음을 얻기 위한 원리와 수행법을 알려준다. 스님은 밝은 마음을 갖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달라지고, 보살이 되기 위해서는 욕망을 버려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 마음을 비우고 자비스럽게 행하는 모든 일상의 행동들이 곧 부처에 이르는 길이며 육바라미를 잘 닦아야 해탈을 이루고, 중생이 참된 상을 보려면 지혜를 길러야 한다고 설한다. 우리나라 불교의 발자취를 소개하고, 계정해 삼학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길도 제시하고 있다.



동쪽 산이 물 위로 간다
원해 스님 옮김 | 화남출판사 | 1만2000원

yosiamun.com 추천도서

- 기도 명진출판사, 탁남한, 9000원
- 티벳 사자의 서 정진세계사, 파드마삼바하, 2만원
- 마음 밭이다 시공사, 지수스님, 9500원
- 꿈 미래의 열쇠 대우학당, 현오스님, 2만원
- 선, 침묵의 천둥소리 1 김영사, 김시행, 1만9000원

도서주문 (02)2004-8220

인생에 단 한 번 만날 수 있는 경전!

삶의 지침서 <인생경>이 오랜 침묵을 깨고 드디어 새롭게 창간 탄생되다!

우리의 인생을 행복으로 인도하는 <인생경>! <인생경>을 접하는 날로부터 인생이 달라진다! <인생경>을 읽으면 운명이 바뀐다! 자녀들에게 사랑담게 사는 길, 미래의 꿈을 심어주는 인생 지침서 <인생경>! 가정, 일터,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현장마다 한 권씩 평생 지혜의 보감으로 대물림할 수 있는 책 <인생경>!

김기상 지음 / 704쪽 / 양장 / 4×6배판 변형 / 32,000원

- 동서고금 여러 성현들의 말씀 중 삶에 직결되는 말씀만 골라서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저자가 21년 동안 평범한 인생의 언어로 풀어쓴 인생의 경전!
- 하루에 한 번 아무 곳이나 펴서 읽으면 남녀노소 누구나 특정 종교나 사상, 이념에 구애받지 않고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5,457구절의 주옥같은 명언, 명구!
- 논술, 글쓰기 교육이 따로 필요 없다! 우리 겨레 고유의 배틀머리 교육, 무릎 위 교육 부활 선언!

주문처 서울(본사) 02-373-8184, 010-2246-8184/중로 010-7143-8325/보문동 010-2241-3661/수색 010-5561-1071/남가좌 011-270-6356 서초 010-4232-8833/목동 010-2241-6151/동작 010-5500-6646/신림 016-781-5917/서울대 011-9711-1554/낙성대 011-9998-8832 안양 011-249-3499/인천 010-2415-7500/인천 019-362-2913/부천 010-6484-4944/부천(박세기) 011-736-4948/안산 011-9784-4432 대구 010-7323-9900/인덕원 011-227-2421/의왕 010-8008-2857/부산 010-8629-1839/울산 010-4200-5723 충민 및 대리점 모집 문의 02-373-8184/010-2246-8184

☎ 도서출판 백교 전화 02-373-8184 / 팩스 02-302-4818 baikkyyo@dreamwiz.com / http://blog.naver.com/baikkyyo

"운명"을 읽고 나면 성공이 보인다!!!

마음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책 ○ 오히규 실화소설 **운명**

■ 주요수룩내용 ■
종합이야기 성기가 말을 안들어요 땀이 미쳐가고 있어요 의처증 이야기 바퀴 놓고 생각하기 실수의 흔적 처제와의 불륜 육체란 무엇인가? 입시 이야기 성형수술이야기 제발 시집가고 싶어요 세 번 결혼한 검사님 임대와 섹스의 비밀 남편과 제발 헤어지게 해 주세요 두 번 태어난 보일러공의 행복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노년층의 사랑이야기 넘치는 정력을 주체할 수 없어요 자신의 처지를 겸허히 인정하라 운명을 바꾸는 법

■ 책속 부록 ■
▶ 생일로 알 수 있는 내 몸의 건강 ▶ 꿈 해몽 비법 ▶ 띠로 보는 궁합 ▶ 달로 보는 궁합 ▶ 시(時)로 보는 궁합 ▶ 날짜로 손(상성) 보는 법 ▶ 삼재법

전3권 완간기념 할인판매 50%

신국판 350쪽 각권정가 10,000원

전집구입시 15,000원 후불제!
(062)266-1083, 266-6693
으로 전화주시면 책 먼저 보내드립니다
입금계좌:(예금주:오히규)
농협 601175-52-016521

연락처(우편번호 500-500)
광주광역시 북구 청옥(망월)동 374-2번지
전화: 062-266-6693

서울·마포구 아현3동 618-22
전화 (02)365-8172
팩스 (02)365-8173
홈페이지:www.indeneet.co.kr